HYUNDAI
MOTOR GROUP

2026년 미국 하반기 전망

미국 프리미엄 재점화. 3Q 쏠림 Peak 전망

미국주식 | 하장권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Executive Summary

Summary

이란 사태 바닥 대비 15% 넘게 급등한 현 미국 증시는 과열이 아닌 제자리를 찾아가는 국면. 이란 사태 직전 비미국 대비 17년 만에 가장 약세를 보이며 후퇴됐던 미국 프리미엄이 되돌려지는 과정으로 해석. 특히, 침체 수준까지 저렴했던 AI 대형주, AI 하드웨어 중심으로의 쏠림이 특징적이며, 3분기까지 자리잡을 중간선거 영향권 속 이들의 쏠림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 2026년 S&P 500 Target 8,000pt 유지

1. 과열이 아닌 제자리로

-이란 사태 이전 시점을 돌이켜보면, 글로벌 경기 Bottom-out + 약달러 기대감 확산되며 미국 대비 비미국 강세가 특징적

-다만, 매크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상대적 약세 수준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것에는 의문을 가질 필요

-미국 프리미엄이 이례적으로 축소된 배경으로 ①탑다운 단으로는 셀 아메리카 촉진한 트럼프, ② 바텀업 단으로는 AI Disruption으로 파악

-이란 사태를 트리거로 미국 증시 프리미엄은 다시금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향후 전개될 트럼프 레임덕 역시 프리미엄 회복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

2. 생산성 증대는 멀티플 체급을 높인다

-현 국면은 AI 산업전환이 고용 부진을 촉진하기에 AI 혁신 + 유동성 장세가 이례적으로 중첩될 수 있는 장세

-기술 혁신이 불러온 생산성 증대는 증시에 밸류에이션 체급 확대를 의미. 다만, 닷컴버블 당시 2배를 상회하는 NPM에도 지수 멀티플 상승은 제한적인 상황

-1월 말 케빈 워시 지명 당시, 유동성 민감 자산군 중심의 발작으로 증시는 우려 표출. 다만, 인준 이후 증시는 되려 완화적으로 그를 해석할 공산이 높음

3. 중간선거 눈치보기

-보통의 중간선거는 2~3Q 지수 상승이 제한되는 가운데, 주도주 상대성과만 돋보이는 알파 장세의 성격이 짙음

-다만, 2Q는 이란 사태의 되돌림이 증시 주요 동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파악되며, 트럼프가 셀 아메리카 촉진시켰던 당사자임을 고려하면 이번 중간선거가 BM에 미치는 영향은 평시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 가파른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에 그칠 가능성에 주목

-대형주 내에서는 AI 하드웨어 업종 중심의 쏠림이 더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하며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메리트 역시 부각될 것으로 판단